

03 2026 vol.623

만남



교회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충추는 교회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

5대 본질



3월 목회력

- 01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 06 금 ·연합권찰모임 개강
- 07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연합토요직장권찰모임 개강
- 08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제직회
- 15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 여전도회 가입주일, 새가족환영회
- 20 금 ~ 21 토 ·구역장 수련회
- 22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 24 화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 27 금 ·심방준비회
- 29 주일 ·종려주일
- 30 월 ~ 4/4 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CONTENTS



04

이달의 말씀

02 무죄라니요? _ 김운성

특별기고

- 04 음악으로 만나는 사순절 _ 박소인
- 08 3.1운동과 디아코니아 선교 _ 이성곤

특집 복음의 능력, 소그룹과 찬양 위에 피어나다

- 12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소그룹 _ 김여호수아
- 16 4부예배 찬양팀 '헵시바' _ 채철우

다음세대 / 청년광장

- 20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_ 박지영
- 22 교회학교 사역의 핵심 가치 _ 방덕종
- 24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_ 김주찬
- 26 복음, 그 따뜻한 울림을 안고 세상으로 _ 백예빈



26

- 28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_ 최연우
- 30 송실대학교 전도부스 _ 임강현

영락 글로벌

- 32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네팔어예배 _ 루벤

땅끝까지 이르러

- 34 복음의 리듬에 맞춰 다시 춤추는 3040 _ 김의성
- 36 뉴코리아국제학교 _ 이나영
- 38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복음 앞에 다시 서다 _ 윤희선
- 39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_ 김석순

만남 그리고 사람들

- 41 포이메네스 영성수련회 _ 신중식, 신윤숙
- 42 은퇴 원년에 _ 김지연
- 44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_ 변창우

38

영락의 울타리

- 46 한 고등부 목회자의 이야기 _ 김현준
- 48 자본주의와 성경적 경제생활 _ 신이철
- 52 기억을 디자인하다 _ 조진숙
- 54 영락시어터 3월 상영 영화 _ 문화선교

교회소식

- 55 2026년 제직부흥회 개최 외
- 60 <갯세마네의 그리스도> _ 이은혜
- 61 새이기·새가정

무죄라니요?



김운성 담임목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22~24)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1768~1834)는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대표작 『종교론』에서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정이란 교리나 계시 같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각 개인이 종교적 경험을 통해 체험하는 직관적 느낌을 말합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종교심도 깊다고 봅니다. 신학의 과제는 종교적 감정을 기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신조나 교리보다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적 자유주의로 흘렀습니다.

종종 간증을 들어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다, 불덩이가 가슴에 들어왔다,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느낌, 혹은 감정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자

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제 부모님께서서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차이가 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환상을 보셨다, 꿈을 꾸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방언도 하셨으며, 신유의 은사도 있어서, 많은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었다는 말씀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도 좀 뜨겁게 믿으세요.” 하면,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는데, 뭘 또 바라느냐?”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네 아버지처럼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살아계시며,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질병의 치유

를 통해, 목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늘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중에 늘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혹시 뭔가 강력한 체험이나 느낌, 혹은 감정을 얻지 못해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라 이어마허와 다르게 가르친 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법정적 칭의'입니다. 칭의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인정이란 '판결'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악한 죄를 짓고 재판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자책하며,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자기에게 무거운 형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사형 판결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대는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그는 귀를 의심합니다. 그는 판사에게 “판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중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판사는 “무죄이니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죄라는 확신, 당연히 풀려나야 한다는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려나는 기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이나 생각,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판사의 판결입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정하면 아무리 그 스스로가 자신을 죽을

강력한 체험이나 감정을 얻지 못해 불안하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의'를 기억하라

'구원'은 신앙적 체험, 증거들로 매겨지는 결과가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판결'

죄인이라고 말해도 풀려납니다. 법정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지 그의 법적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맹송맹송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무죄를 판결하셨습니다. 이 판결에는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결정적입니다. 풀려나는 사람이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자신이 무죄임을 확신하게 되듯이, 우리도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써,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무죄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뜨거운 가슴, 흐르는 눈물이 없어도 걱정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결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기쁨으로 춤추는 것뿐입니다. **만남**

음악으로 만나는 사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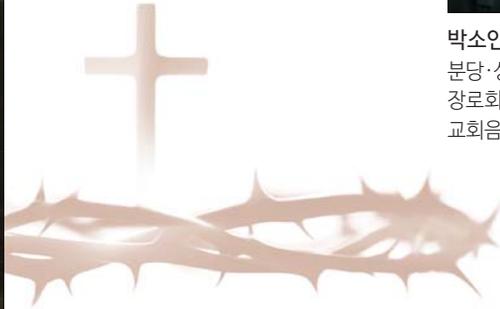
박소인 은퇴권사
분당·성남교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명예교수



창(1618-1620 코닝클릭 미술관_ 안트베르펜 벨기에)
페터 파울 루벤스

사순절의 유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초대교회로부터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일입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전 40일과 후 50일을 부활절 중심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 형성 과정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도…**(고린도전서 5:7~8)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로서 금식과 철야가 포함되는 상당히 어려운 준비를 거친 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본래 사순절의 의미였고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고 예전학(禮典學)에 의하면 이 기간의 6주일과 부활주일 후 6주일에는 특별한 이름들(해당 주일 입례(Introit) 성구의 라틴어 어순 상의 첫 단어)이 붙여져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 이름(라틴어) - 해당입례 성경구절

- ① **Invocavit** -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편 91:15)
- ② **Reminiscere** -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시편 25:6)
- ③ **Oculi** -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시편 25:15)
- ④ **Laetare** -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이사야 66:10)
- ⑤ **Judica** - 하나님이며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시편 43:1)
- ⑥ **Palmarum** -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요한복음 12:13)

부활주일

- ① **Quasimodogeniti** -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2)
- ② **Misericordias Domini** -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시편 33:5)
- ③ **Jubilate** -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시편 66:1)
- ④ **Cantate** -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시편 98:1)
- ⑤ **Rogate** - 기도하라
- ⑥ **Exaudi** -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시편 27:7)

성경강림절(50째 날) 이렇게 부활절 중심의 축일이 끝나게 됩니다.

사순절 음악

교회음악이 가장 발전한 1650년~1750년경, 독일 루터교 전통으로는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음악이 제한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회개, 기도, 금욕을 강조

했고 음악의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몇 루터교 도시에는 이러한 사순절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반영하는 규범이 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순절 기간(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직전까지)에는 칸타타 같은 공식 교회음악이 연주되지 않는다.
- ② 예배에서 기악 반주가 포함된 화려한 음악은 연주되지 않는다.
- ③ 오르간의 리드 계열과 현란한 음색은 사용되지 않는다.
- ④ 찬송 중에 할렐루야 구절을 부르지 않는다.

즉 단순한 코랄(찬송가) 위주의 음악만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성금요일에는 수난곡이 연주되었는데, 사순절의 엄숙함과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난곡 (Passion)

이 시기 교회음악가들은 성금요일 연주를 위해 수난곡을 작곡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성금요일에 복음서의 수난 부분을 그레고리안 찬트로 낭송하던 전통에서 출발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에서는 독일어 성경을 사용하게 되었고,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수난곡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① 복음서 본문을 복음사가가 레치타티브로 서술
- ② 군중(합창), 예수, 개별 인물의 역할을 분담
- ③ 자유시 가사를 붙인 아리아
- ④ 코랄(회중 찬송)

바흐와 마태수난곡 (Matthäuspassion BWV 244)

이 시대에 활동했던 바흐(J. S. Bach, 1685~1750)는 19세부터 생애 대부분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살았는데, 마지막 여정은 라이프치히 성토마스교회의 칸토르



토마스교회 내부 왼쪽 벽에 설교대와 맞은편에 오르간

(Kantor)였습니다. 칸토르는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의 독특한 직업인 국가공무원 교회음악가입니다. 그의 임무는 매주 예배 오르간 반주, 새 칸타타를 작곡, 토마스 학교 합창단 지휘, 라이프치히 주요 4교회 음악 총괄 및 교구 음악 교육이었습니다.

토마스교회의 예배는 엄격한 루터교 전통을 지켜 미사 형식을 유지하되 설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설교는 꼭한 시간이었고 마틴 루터의 전통에 따라 회중찬송이 예배의 핵심 요소로서, 회중들은 코랄을 부르며 적극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코랄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신앙고백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오르간은 예배 악기로 회중찬송을 인도하고 묵상으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을 제외한 모든 주일에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를 연주했습니다. 주일예배는 아침 일곱 시에 시

작하여 3~4시간 소요되었는데, 예배가 끝나면 마차들의 질주로 라이프치히 시내가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있는 저녁 기도회(Vesper)에 다시 오기 위해서였지요.

바흐의 교회음악 활동의 특별한 점은 그의 지극한 찬송가 사랑에 있습니다. 그가 오르간 작품뿐 아니라 칸타타나 수난곡 등의 합창음악에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코랄(찬송) 전통은 독일만의 유산으로, 종교개혁 당시 처음으로 자국어로 된 찬송가를 부르게 된 이후, 독일 전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찬송시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독일 찬송가는 4~5절로 국한되지 않고 7절 또는 그 이상 12절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마스교회 신자들은



바흐의 마태수난곡 서곡 (자필 악보)

은 찬송가를 외워서 불렀다고 하는데, 바흐의 오르간 연주와 회중의 찬송은 상당한 음악적·신학적 교감을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악 학자들은 그의 마태수난곡을 중세 전통적인 수난 음악, 루터교의 신학, 바로크음악 양식과 오페라적인 극적 성격의 조합체라고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6~27장을 서술하는 이 수난곡의 주제는 ‘고난받는 인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버림받음, 인간적인 고뇌를 부각하고 있고, 신자는 사건을 바라보며 깊이 공감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무대 위의 연주자들을 무대 아래서 감상하는 개념이 아니고, 회중들은 코랄을 같이 부르며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코랄(회중 찬송)의 역할은 전체 작품의 구조적 기둥으로, 마치 회중이 끊임없이 사건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람들의 조롱, 군인들의 채찍질 등 모든 사건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는 내면의 참회를 보게 되는데, 이 선택과 배치에 바흐의 신학적인 해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코랄들은 당시 루터교 신자들이 예배 참여의 핵심 수단으로서 잘 알던 찬송 선율로 사순절에 맞는 회개와 고난의 가사를 가진 노래들입니다.

1727년 성금요일, 토마스교회에서 3시간에 걸친 이 연주회가 마침내 끝났을 때, 아무도 감히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픔과 참회에 몰입된 그때 토마스교회 신자들의 찬양을 생각해 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싸여
가시관 쓰셨네... **만남**

3.1운동과 디아코니아 선교



이성곤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신학

1919년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 운동은 단순히 나라의 독립을 외친 정치적 사건만은 아니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민족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신앙의 양심으로 행동했다. 3.1운동은 기독교의 ‘섬김’ 정신, 곧 디아코니아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1%에 불과했지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숫자만 보아도 기독교가 이 운동에 얼마나 깊이 참여했는지 알 수 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나라와 이웃의 아픔에 응답하는 공동체였다.

디아코니아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는 헬라어로 ‘섬김’ 또는 ‘봉사’를 의미하는 신학적 개념이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마가복음 10:45)라고 말씀하셨다. 초대교회도 이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오늘날 디아코니아 선교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려는 신앙의 실천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선교는 언제나 말씀 선포와 섬김이 함께 가는 길이었다.

한국 개신교, 섬김으로 문을 열다

한국 개신교는 처음부터 디아코니아 선교로 시작되었다. 1884년 의료 선교사 알렌이 갑신정변으로 부상한 민영익을 치료하며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후 선

교사들은 병원과 학교, 고아원(오늘날의 보육원)과 양로원을 세우며 민중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와 교육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활동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선교였다.

1885년 알렌이 설립한 광혜원(이후 제중원으로 개칭)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다. 의료 선교는 단순히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미신 타파, 평등사상 전파, 기독교적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회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교육 선교 또한 중요한 디아코니아 선교였다. 1885년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매리 스크랜튼이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세워진 유치원, 시각·청각장애인 학교, 보육원 등은 한국 근대 사회복지의 효시가 되었



다. 특히 기독교 학교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독교 민족주의를 교육 철학으로 삼았고,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디아코니아 선교의 전환점이 되었다. 부흥운동 이후 교인 수가 급증하고 교회 재정이 증가하면서, 선교사들이 주도하던 사회봉사 사업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문맹 퇴치, 빈민 구제, 여성 교육, 학교 설립 등 다양한 섬김의 사역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들은 민중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근대적 가치를 전파하며, 결국 민족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디아코니아, 민족운동으로 확장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어난 3.1운동은 디아코니아 선교가 민족운동으로 확장된 구체적 사례였다. 첫째, 기독교의 조직적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총화·연회라는 중앙 조직과 노회·지방회라는 지역 조직을 연결하는 전국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은 3.1운동 당시 전국적 동시 시위를 가

능하게 한 핵심 인프라였다. 교회 조직과 예배, 연합집회를 통해 독립선언문이 전달되었고, 교회의 종소리를 통해 순식간에 시위를 알렸다.

둘째,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주의는 디아코니아 선교의 본질을 보여준다. 독립선언서는 “우리는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폭력의 원칙은 기독교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 즉 디아코니아의 본질과 일치한다. 디아코니아는 힘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 섬김이다.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정의를 추구한 것은 디아코니아 선교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보여준다.

셋째, 기독교인들의 헌신적 참여는 디아코니아 선교의 실천이었다. 기독교인들에게 3.1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따른 디아코니아 실천이었다.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디아코니아의 본질이었다. 기독교 여성들도 적극 참여했다. 평양에서는 장대현교회 여전도회가 태극기를 제작했고, 원산에서는 배성학교 교장 이가순이 독립선언을 준비했다.

넷째, 선교사들의 증언과 지원이 있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는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3.1운동 당시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전 세계에 폭로했다. 병원 선교사들은 만세운동 중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은 디아코니아 선교가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1운동의 선교적 의미

3.1운동은 신앙과 사회 참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억압받는 민족을 위해 행동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 선교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해방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 디아코니아 선교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1운동에서 나타난 교파 초월적 연대는 디아코니아 선교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준다. 디아코니아는 교회 내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민족을 향한 섬김이었기에, 교리적 차이나 교파적 이해관계보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선했다. 민족의 해방과 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디아코니아 과제 앞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롯한 기독교가 하나되고, 타종교와도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디아코니아 선교가 배타적 종파주의를 넘어 공공선을 추구하는 개방적·협력적 성격을 지녀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개교회주의와 교단 이기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디아코니아 선교의 에큐메니컬 정신이다.

3.1운동이 교회에 주는 교훈

3.1운동이 주는 선교신학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첫째, 사회적 책임과 디아코니아 선교의 회복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3.1운동은 교회가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함을 보여준다. 디아코니아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교회는 고립된 종교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

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둘째, 통전적 선교 이해의 회복이 요구된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선교 사명이며, 한국 교회는 선포와 섬김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디아코니아를 단순한 사회봉사나 구제 활동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의 본질적 선교 사명이다.

셋째, 구조적 불의에 대한 선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지역 간 격차, 경제적 양극화 등이 심각하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불의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는 신앙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아픔에 응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을 돌보는 일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말씀과 삶, 선포와 섬김은 함께 가야 한다. 또한 오늘의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가난, 차별, 불평등 앞에서 교회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3.1운동의 시대에는 '나라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오늘의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교회는 다시 한번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이것이 3.1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이다. **안남**

특집

복음의 능력, 소그룹과 찬양 위에 피어나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 먼저 빛납니다.
구역과 말씀 소그룹,
그리고 4부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 '헵시바' 가운데서도.

2026년,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를 꿈꾸며
영락교회는 다시 개척교회처럼
한 사람, 한 소그룹, 한 예배를 품고자 합니다.

목양과 소그룹, 찬양과 예배가 어떻게 만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라는 인사가 다시 살아나는지,
이번 특집 기사 두 편을 통해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소그룹

새해는 개척 교회처럼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표어에 맞춰 ‘다시 개척 교회처럼’이라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를 넘어 각 가정과 소그룹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교회’라는 자의식을 갖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새로운 목표와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경 속 개척 교회의 원형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개척 교회의 원형이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는 명확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집에서 떡을 떼는 ‘교제’,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하는 ‘기도’입니다(42, 46절). 그 결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김여호수아 목사
고양·파주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자원봉사부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43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소그룹, 교회를 지탱하는 생명력

오늘날 이러한 초대교회의 핵심을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교회를 생명력 있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동력입니다. 지난 1월호 『만남』에 실린 김운성 담임목사님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한 성도님의 일화가 소개됐습니다. 그분은 “영락교회는 계속 다니기 어려운 교회”라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왔다 가도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안 와도 “왜 안 오세요?”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단단히 형성된 관계의 블록 안으로 새로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는 현실적인 토로였습니다. 이는 우리처럼 큰 교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반면 개척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돌봄이 뜨겁습니다. 누가 한 명만 와도 엄청난 인사와 환영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소그룹에서 이뤄지는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 큰 활기를 전해줍니다.



1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6주간 진행한 소그룹 리더십의 실제

우리 교회의 소그룹 현황과 영적 비전

현재 영락교회는 약 1,200여 개의 소그룹을 운영합니다. 장년은 18개 교구 아래 1,090개의 구역이, 그 밖에 주일, 토요 말씀 소그룹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소그룹을 구성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이 초대교회와 같이 매주 모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돌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분명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교회에 첫발을 디딘 새신자도 큰 관심과 축복 속에 원만한 정착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각 교구의 목회자, 구역장, 지회장과 구역원들에게 전달되어 다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도행전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모임의 크기와 모양보

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개척 교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그룹전담부의 사역

소그룹전담부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담당 교역자(목사, 전도사)와 부장 장로님, 차장 안수집사님과 담당 권사님을 비롯한 헌신적인 임원진들로 구성된 전문 부서입니다. 소그룹전담부는 다음 세 가지 사역에 핵심적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소그룹 리더십 훈련

소그룹의 성패는 복음으로 무장된 리더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소그룹전담부는 상반기(1~2월)와 하반기(7~8월)로 나누어 소그룹을 이끌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8주간 진행된 리더 양육 과정을 통해 이미 45명의 귀한

소그룹 리더를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6주 동안 실시한 ‘소그룹 리더십의 실제’ 과정에는 90명의 리더가 훈련을 이수했습니다.(사진 1) 하반기에는 ‘소그룹 리더십의 이론’(사명 편)과 ‘소그룹 리더십의 실제’(방법 편)로 나누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2. 말씀 소그룹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말씀 중심의 모임입니다. 말씀 소그룹은 소그룹 리더십 훈련을 이수한 준비된 리더들이 각 모임을 인도합니다. 현재 1) ‘토요소그룹’(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8:30, 50주년기념관 503호)과 2) ‘주일소그룹’(상·하반기 주일 오후 1:30, 제2식당)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소그룹으로 배우는 마가복음’을 통해 16개 조에서 약 100명의 성도가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경험했습니다.(사진 2, 3, 4) 아울러 다가오는 3월 15일부터는 ‘주일 말씀 소그룹’(룻기, 매 주일 오후 1:30, 제2식당)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100여명의 성도가 사전 접수했고, 3월 초에 선착순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3. 이음 소그룹

이음 소그룹은 올해부터 목양부와 협력하여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역입니다. ‘이음’이란 이름은 새가족을 교구와 구역에 단단히 ‘이어준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역이 특별한 이유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과 같은 교회의 중요한 향존직이 한마음으로 동참한다는 점입니다. 각 교구의 목회자와 향존직이 새가족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는 이 소그룹은 향후 영락교회의 100년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 영적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2 소그룹으로 배우는 마가복음 강의



3 소그룹으로 배우는 마가복음 리더 수료식



4 9주간 매 주일 진행된 주일 말씀 소그룹 종강식

소그룹을 통해 다시 춤추는 영락교회를 향하여

소그룹은 복음의 능력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시작은 소그룹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한경직 목사님과 27명의 성도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 오늘의 영락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수많은 학교와 복지기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과 27명의 헌신적인 소그룹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온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와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거룩한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초대교회와 같이 개척 교회의 정신으로 살아 움직이며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영락교회 소그룹을 통해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소그룹으로의 초대

이제 여러분을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소그룹의 현장으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특별히 3월 15일(주일)부터 시작되는 '주일 말씀 소그룹' 과정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교구의 구역과 지회 그리고 대학부와 청년부 등 다양한 소그룹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소그룹을 통해 초대교회가 가졌던 개척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미소 지으며 기쁨으로 춤추는 행복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 4부예배 찬양팀 '헵시바'



채철우 목사
안양·수원교구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의료선교부



예배의 문을 여는 열 명의 예배자들

헵시바는 주일 4부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입니다. 매주 본당에서 오후 1시 15분부터 약 2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인도에는 채철우 목사, 상어로는 허성준 전도사, 최민희 권사, 장근희 집사가 섬기고 있으며, 임수현 집사(건반), 채진규 집사(음향), 최유경 권사(바이올린), 김지미 집사(첼로), 이학주 집사(드럼), 배성은 자매(클라리넷)까지 총 10명의 팀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세대를 잇는 하모니

헵시바는 2019년에 창단되었습니다. 본래 영락교회 주일예배는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모습을 따릅니다. 엄격하고 절제된 예배와 찬양대의 풍성한 성가곡은 지금도 영락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예배자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예배의 흐름 속에는 절제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하는 쪽의 신앙도 있고, 친근하고 경쾌한 찬양과 영성을 추구하는 쪽의 예배도 있습니다. 4부예배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가미하여 현대적인 찬양, 그리고 새아기 가정과 신혼부부 가정, 군입대 청년을 축복하는 시간 등을 도입했습니

다. 그런 예배의 취지를 따라 헵시바가 창단되었고,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그 자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4부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로부터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들을 때 가장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헵시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의 찬양팀들이 일렉기타와 베이스, 드럼과 건반으로 구성된다면, 헵시바는 건반과 드럼,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과 같은 클래식 악기가 함께합니다.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편으론 역동적이고 힘 있는 찬양을, 또 한편으론 풍성하고 따뜻한 선율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인도자로서 찬양곡을 선곡할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시편 96:1)는 말씀처럼 새로운 찬양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예배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익숙한 찬양을 선곡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 이전의 찬양

곡 중에서 오랫동안 부르지 않아 오히려 새롭게 와 닿는 찬양을 선곡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마음으로 고백이 되는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콘티를 구성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삶의 자리로 흐르도록

헵시바는 선교의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영락교회 문화선교부와 협력하여 CTS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다시 부르는 찬송가’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성도들과 찬양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팀의 싱어로 섬기는 최민희 권사님과 장근희 집사님은 외부에서도 찬양사역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부예배 찬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헵시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헵시바’란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올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헵시바 인터뷰



최민희 권사 _ 싱어
인천교구

1. 헵시바를 함께하며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특히, 4부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성령'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마치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벅찬 감동이 임합니다.

2. 예배 후 성도들의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찬양을 통해 개인적으로 영적인 회복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전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전심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찬양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 헵시바를 섬기면서 가장 크게 변한 자신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찬양간증집회나 거리전도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소년원, 병원, 노숙인 등 주로 그 대상이 믿지 않는 분들이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기에 전도의 사명감으로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부예배 헵시바를 섬기며 성도님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

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찬양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근희 집사 _ 싱어
용인·화성교구

1. 헵시바를 섬기게 되면서 감사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뿌리내린 영락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유·초·소년부, 중·고등부, 호산나찬양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영락기도원 금요철야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찬양과 예배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것이 저의 사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은 개인적으로 제 사역의 전환점을 맞았던 해였는데, 주님께서 다시금 헵시바를 통해 모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 찬양사역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과, 깨달은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 제가 이 모양인데도 제 찬양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찬양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하고 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근희야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고 너의 찬양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제 더러운 마음 받을 곳노래 부르시고 땀 흘리시며 기경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3. 찬양을 통해 성도들에게 흘러가길 바라는 은혜는?

주일마다 본당 강단에 서면 헵시바와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는 성도들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단했던 일상, 씨름했던 기도제목을 가지고 성소에 나와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 분 한 분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요.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임수현 집사_건반
동대문·중랑교구

1. 헵시바로 섬기게 된 계기와 마음가짐은?

4부예배가 3040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헵시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 예배팀으로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 헵시바라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2. 헵시바만의 분위기나 특징은?

헵시바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배님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고민하고 씨름한 흔적들이 여실히 드러나, 그것이 지금의 헵시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기뻐할 줄 알고,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아주 건강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3. 4부예배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가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합창 소리가 천사의 울림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은혜받을 때도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4부예배에 오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박지영 성도
청년회 웰컴마을
사랑부 교사



사랑부에서 처음 본 '작은 하나님 나라'

저는 사랑부에 들어온 지 이제 3개월 된 신입 교사입니다. 사랑부라는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수십 년을 교사로 섬겨온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돕는 손길들... 이처럼 많은 세월 앞에서 제가 느낀 사랑부는 지극히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있는 곳이 바로 사랑부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서게 된 교사의 자리

부끄럽지만 처음 교사로 섬겨야겠다고 생각한 건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늘 낮은 자리에 계시기에 그 자리에 가면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갈급함을 채우고자 작년 말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어떤 부서를 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 몇 해 전 사명을 두고 기도했을 때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고, 그렇게 사랑부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어우러진 예배와 겨울 수련회의 기쁨

사랑부 예배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가지고 있는 아픔도 모두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저마다의 다름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 그 과정 자체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기쁨이고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수련회는 함께하는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썰매를 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함께 썰매를 타시는 선생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선생님,

혹시나 학생이 다칠까 염려되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생님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기도원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기에,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과 함께 손을 잡고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했고, 부족한 저에게 맡겨 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부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처럼 사랑부는 함께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누군가를 한결 같이 사랑하기에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사랑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사랑부와 교회를 넘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부와 영락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깊이 소망합니다. **만남**

만남, 성장, 자발성, 즐거움

영락교회 교회학교 사역의 핵심 가치



방덕종 목사
교육전담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당 복도를 뛰어다니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음세대'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영락교회 교회학교는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정립된 우리 사역의 네 가지 핵심 가치(만남·성장·자발성·즐거움)를 성도 여러분께 소개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떤 토양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Meeting): 교육을 넘어선 '사건'의 시작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신앙을 '지식의 전수'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교리를 머리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가르쳐서 억지로 얻을 수 있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의 진정한 주체는 목회자도 교사도 부모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은 단지 그 만남을 위한 '통로'를 닦는 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영락교회 교회학교의 최우선 사명은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은 단순히 순서를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우하는 '사건'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영적 전율을 느끼는 그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을 지탱하는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예배와 활동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성장(Growth):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는 영성

교회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장 날카롭게 질문하는 항목은 바로 '성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가 모였는가?'라는 양적 팽창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이들이 이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적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히 키가 크거나 지식이 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전인적인 성숙을 뜻합니다.

-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기도할 줄 아는 아이
-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
-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성경적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아이

우리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주목합니다. 서툴렀던 기도 손이 모아지는 것, 서먹했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장의 증거입니다. 영락교회는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자라나도록 최고의 비료와 양분을 제공하는 영적 정원이 되고자 합니다.

자발성(Voluntariness): 스스로 움직이는 신앙의 동력

교육심리학에는 행동을 끌어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벌이나 꾸중을 통해 피하고 싶은 상황을 면하게 하는 '부적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칭찬과 보상, 성취감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정적 강화'입니다.

영락교회 교회학교는 철저히 후자인 '정적 강화'를 지향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신앙은 부모나 교사의 눈을 벗어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해야만 해서(Have to)'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Want to)' 움직이는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봉사에 참여하거나 찬양팀에 서는 일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아이들의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고, 스스로 기도하는 자발적 신앙인으로 자라날 때, 그 아이는 어떤 거센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Joy): '은혜'의 아이들 언어는 '재미'

어른들이 예배 후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들의 언어로 은혜를 표현하면 바로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입니다.

우리는 교회학교가 아이들에게 세상 그 어디보다 즐거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은 결코 경건함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밝고 따뜻한 분위기: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곳
- 오고 싶은 예배: 지루한 형식이 아닌 가슴 뛰는 찬양과 메시지가 있는 시간
- 역동적인 활동: 오감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

예배가 지루하고 교회가 답답한 곳이라는 편견을 깨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설레는 '즐거움'이 있을 때, 복음은 아이들의 마음 밭에 가장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성도 여러분, 영락교회 교회학교는 이 네 가지 가치 위에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매일의 성장이 눈에 보이며, 스스로 헌신하는 자발성이 꽃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신앙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가 이 건강한 가치 안에서 자라나 대한민국과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만남**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 2026 청년회 리더십 캠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



김주찬 성도
청년회 수석부회장



영적 리더의 사명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지난 1월 10~11일, 서울 은평구 팀수양관에서 청년회 리더 109명이 함께 예배하는 리더십 캠프가 열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 특별한 시간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청년회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리더십 캠프를 첫 번째로 기획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맡겨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새로배움터 뿐 아니라 외부 강사 초청, 집회, 기도의 시간을 통해 리더의 사명과 태도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뜻깊었던 순서를 꼽자면 '리더 서약서' 작성 시간이었습니다. 리더 서약서 작성은 리더들이 일상 속에서 조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 일 년 동안 지켜 나갈 다짐을 말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서약이 일 년 동안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 모두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목소리로 아래의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리더 서약서

나는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리더로서 성경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리더로서 나 자신을 사랑하되, 조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품겠습니다.

하나, 나는 리더로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나는 리더로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마음에 따라 복음을 품고, 섬김과 헌신으로 리더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이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질 때, 함께 자라가는 청년회

청년회 리더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학교와 직장, 가정과 사회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과 리더의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하기에, 이 서약은 결코 가볍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약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다짐이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리더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드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약의 내용이 일 년 동안 리더들의 삶 속에서 지켜지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리더들이 세워질 때 청년회 공동체도 함께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리더십 캠프가 그 시작이 되어, 청년회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남**

복음, 그 따뜻한 울림을 안고 세상으로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친 이번 겨울, 매서운 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하나로 모였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다시 묻다, 첫째 날의 배움과 고백

이번 겨울수련회(2026. 1. 22~24)의 주제는 'VOGUEM: What is Gospel?'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복음'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배우고, 배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갔습니다. 대학부 수련회의 시작은 언제나 하루 앞서 나아가는 선발대의 발걸음으로 열립니다. 하루 일찍 기도원에 도착해 곳곳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나아왔다는 힘듦보다도 텅 빈 기도원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벗님들로 가득 찰 모습을 떠올리며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백예빈
대학부
111대 Allways
학생회 부회장

목요일 아침, 많은 벗님께서 추위를 뚫고 기도원으로 하나둘씩 모여 주셨습니다. 첫째 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인생 선배들의 지혜를 듣는 'On-boarding'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지도위원분들과 전도사님들께 삶의 지혜와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 크고 작은 걱정이 있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벗님들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며 신앙의 부리를 더욱 깊게 내렸습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벗님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크게 살아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첫째 날 집회에서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강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해낼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내 앞에 계실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두려움과 연약함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마음과 입술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몸으로 익힌 복음, 둘째 날 Unity의 시간

둘째 날 'Unity' 시간은 머리로 배운 복음을 몸으로 익히며 지체들과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뻣뻣한 일정 속에서 다섯 개의 코너를 모두 도느라 지쳤을 법도 한데, 벗님들은 모든 코너에 적극 참



조별 나눔 시간-조별로 친해지는 자유로운 시간 속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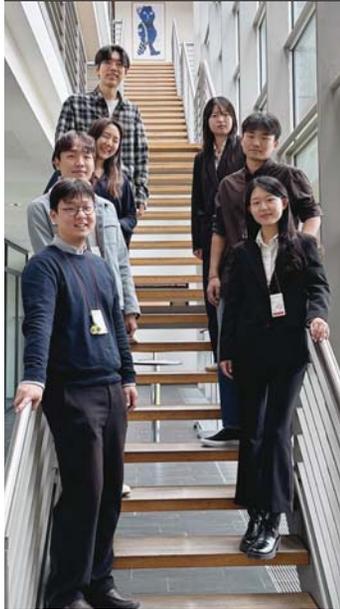
여해 주셨고,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조원들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큰 울림과 감사를 안겨주었습니다. 2일 차 집회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지 못했음에도 저를 찾아와 기도로 동역해 주는 벗님들을 보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벗님들을 통해 제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 밖에서 이어지는 Mission, 삶의 예배로

겨울수련회가 끝나고 대학부 벗님들은 이제 'Mission'을 품고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원을 나서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할지 모르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 가슴에 심어진 '복음'이라는 따뜻한 씨앗을 세상에 뿌리러 나갑니다. 대학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렸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몰라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서 걸어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 주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벗님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배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피워낼 영락교회 대학부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 KIST Europe에서 인턴 동기들과
▼ 파독 간호사 선배님의 집에서 선배님과



GERMANY



최연우
대학부 웰컴마을

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독일 자르브뤼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에서 인공지능 분야 인턴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것은 오래전부터 품어 온 꿈이었습니다. 이번 인턴 생활은 그 꿈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저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전과 열정이 살아 있는 유럽의 연구·기술 현장

제가 경험한 유럽의 연구·기술 현장은 자유로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IT.CON이라는 IT 박람회를 방문했는데, IT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연구소와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순수한 즐거움과 열정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사람들이 영어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들의 도전적인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aiHealth2025 학회에서는 학부생 신분으로 연구를 발표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연구자가 제 발표를 끝까지 경청하고 질문을 던지며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대와 경력을 초월해 서로의



스위스 학회 발표 현장



자르브뤼켄 한인교회에서의 성탄 예배

연구에 귀 기울이는 학회의 분위기 속에서, 저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연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다음세대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독 간호사 선배님과의 만남

독일 한인 신문에서 우연히 우리 학교 동문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먼 타지에서 동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반기운 마음으로 연락드렸고, 답장을 주신 분은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68학번 대선배님이었습니다. 제 독일 체류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선배님께서 저를 손주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며 따뜻한 한식을 대접하시고 집으로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파독 간호사로 일하시던 시절부터 거주하시던 집으로, 선배님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독일 한인협회와 간호사협회에서 꾸준히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파독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을 담담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회상하시며, 이후에도 독일에 남아 한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오셨다는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파독 광부·간호사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졌고, 그 선배님을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특별한 인연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르브뤼켄 한인교회에서 경험한 공동체의 위로

독일에서 살던 동네에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독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도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부터 많은 분이 환대해 주셨고, 청년부 모임을 통해 독일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자르브뤼켄 한인교회,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시편 28:7)

주님께서 제가 독일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셨고, 독일에서 머문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분을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며, 제 학업과 연구를 통해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남**

베어드 선교사가 세우고 한경직 목사님이 재건한 송실대. 캠퍼스 한복판 전도부스에서 따뜻한 커피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온기를 나눕니다. 지난 12월호 연세대 전도부스에 이어, 이번엔 송실대에서 타오르는 작은 복음의 불씨를 전합니다.

송실대학교 전도부스, 캠퍼스에 복음의 온기를 전하다



임강현
송실대 LD1 학생대표
컴퓨터학부 24학번



1 선교단체 연합 부스행사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 2 외국인들 4명에게 강현 학생이 복음 전하는 모습

복음 위에 세워진 송실, 오늘의 캠퍼스 전도

송실대학교(이하 송실대) 캠퍼스에서는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송실대 선교단체 LD1에서는 정기적인 전도부스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부터 학기마다 한 번씩 선교단체들이 교목실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미션데이'를 통해 캠퍼스 전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도부스는 강단 밖 일상의 자리에서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통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 학우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복음을 나누는 전도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지를 건네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활동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고 관계를 쌓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송실대는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 복음 위에 세워진 학교

입니다. 교육과 신앙을 통해 이 땅의 다음세대를 세우고자 했던 그 정신은 오늘의 송실대 캠퍼스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전도부스사역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캠퍼스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작은 순종의 실천입니다.

커피차와 체험형 전도로 열린 복음의 현장

2025년 12월 10일에는 '송실대 해피캠퍼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도부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사랑의교회에서 지원한 커피차가 함께하며 약 1,000잔의 음료를 나누는 가운데 16명의 전도자를 통해 270명 이상의 학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이 낯선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다리가 되었고, 짧은 인사로 시작된 만남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사진 3) 특히 너무 추워서 야외에서 커피



차와 버스 전도가 어려울 거라 예상되었기에, 따뜻한 날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존에 2~3도를 머물던 온도가 전도부스 당일 10도까지 오르는 따뜻한 날씨로 하나씩께서 환경을 주관해 주셔서, 전도자들과 복음을 듣는 학생들 모두 즐겁게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부스에서는 비즈 팔찌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다이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기쁨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비용을 내고 참여하는 활동이지만 무료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자연스럽게 삶의 이야기와 신앙의 질문을 나누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캠퍼스를 넘어 퍼져 가는 복음의 열매

2025년 5월부터 시작된 전도부스사역을 통해 총 591명의 학생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27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

는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함께했으며, 캠퍼스 전체에 복음의 향기가 퍼져 나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부스사역을 통해 평소 전도가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들도 쉽게 전도에 참여하고, 복음 전도의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며 즐겁게 전도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아서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과 교제하며 격려할 수 있었고, 전도를 막 시작한 크리스천 형제도 큰 도전과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송실대 전도부스사역은 캠퍼스 전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계기로 더 많은 기독 학생이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부흥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많은 캠퍼스 가운데 복음의 불길에 다시 일어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캠퍼스 한복판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맞추며 다가가는 전도부스

2025년 LDI에서 캠퍼스마다 일어난 전도부스사역은 이 시대 청년 대학생들의 필요를 맞춰 주며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전도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재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여러 신앙의 선배님이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전도부스사역으로 송실대와 한국 교회에 맞춤형 전도를 통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흥의 통로가 줄 믿습니다. **만남**



최영환 간사
송실대 LDI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네팔어예배

네팔 영혼을 향한 부르심, 그 순종의 첫걸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과 사역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경외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저의 모든 것과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향과 영적 뿌리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네팔 이주민들을 향한 깊은 사명감을 제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2020년부터 영락교회 네팔어예배에서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사역에 대한 소명은 기도와 신학적 훈련, 그리고 네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성도가 없던 네팔어예배... 빈자리에서 싹트기 시작한 소명

저는 코로나 이전 시기에 네팔어예배에 합류했습니다. 그 당시 네팔어예배에는 실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비전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만 있었습니다. 당시 사역의



루벤 전도사
네팔어예배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고, 낙심과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시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는 기도와 신실한 섬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공동체는 점차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어예배는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자리 잡아,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 이주민들에게 영적 돌봄과 교제, 제자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학문적 여정 또한 사역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신학 학사(B.Th.)와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마쳤고, 이후 한국 나사렛대학교에서 신학 석사(Th.M.)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국제대학교에서 신학 박사(Ph.D.) 과정을 밟으며,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성경, 신학,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팔어예배와 더불어, 한국 네팔 연합 펠로우십(United Nepali Fellowship South Korea) 및 다양한 사역에 적극 참여하며, 네팔 이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삶을 나누며 함께 자라가는 신앙 공동체

네팔어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며, 고향과 가족을 떠나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 이주민들의 영적 필요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교제와 나눔, 돌봄, 영적 성장이 중심이 되는, 활기차고 성숙해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가정 모임(하우스 펠로우십)을 통해 각 가정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 성경 나눔, 진솔한 교제를 나누며 교회 밖에서도 믿음과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은 대학생으로, 우리는 그들의 학업적·개인적·영적 여정을 함께 걸으며 고민을 경청하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모임 외에도 게임·카페 모임, 짧은 심방, 묵상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쁨과 환영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격려하며,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삶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기도와 예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된 성도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독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찬양과 음악 등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의 연합을 기뻐하며,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고 식탁을 나누며 서로 돌보는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과 더불어 기쁨과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름, 추석, 그리고 기타 절기에 소모임, 소풍 등으로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팔어예배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 섬김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우리 사역의 비전은 성령으로 능력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세워, 예배와 기독교적 정체성의 삶, 그리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팔어예배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네팔 이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
- 그들을 기독교 신앙의 모험으로 초대하는 것
-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함께 배우는 것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지금도 계속 이루고 계신 역사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신실하게 섬길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네팔 공동체와 그 너머까지 제자를 세우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복음의 리듬에 맞춰 다시 춤추는 3040



김의성 김사
안양·수원교구
3040활성화지원팀장

2026년, 우리 영락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기쁨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역동성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춤으로 표현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의 허리이자 미래인 '3040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마음을 품고 활동하는 '3040 활성화 지원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3040 세대,
'3040 활성화 지원팀'을
소개합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발견한 희망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때 3040 세대의 출석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3040 성도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는 젊은 세대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희망과도 같습니다.



'3040 활성화 지원팀'의 구성과 활동 목적

5년 전 3040 세대를 다시 세우자는 뜻이 있는 분들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선교부 소속 '3040 활성화 지원팀'은 교회 내 3040 세대 성도가 속한 자치회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 청년회, 부부청년회, 부모청년회, 제4남선교회(협력), 제4여전도회(협력) 등 3040 세대에 해당하는 자치회가 감당하고 있는 각자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각 자치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사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허브(Hub)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셋째, 3040 세대가 실제로 직면한 신앙적·현실적 과제를 함께 살피고, 교회 차원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소통의 창구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026년, 3040 세대와 함께하는 사역 계획

첫째, 정착과 연결 지원

새가족부와의 연계를 통해 영락교회를 찾은 3040 새가족이 본인에게 맞는 자치회에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목양부와 협력하여 이들이 교구 안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구역 활동 등 교구 생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각 자치회 활성화 지원

매달 각 자치회를 위한 기도 사역과 함께 각 자치회의 현실과 필요에 맞춘 실질적인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연합예배의 기쁨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정된 '3040 연합예배'를 통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넷째, 연합사역

3040 세대의 관심사와 고민을 반영한 특강, 담임목사님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비전을 나누는 '담임목사님 토크 콘서트', 그리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될 '연합수련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은 3040 세대가 수동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040 세대가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회복할 때, 그 열매는 가정과 다음세대, 그리고 교회 전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락교회 '3040 활성화 지원팀'의 사역 위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배움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 뉴코리아국제학교



이나영 기자
자유인예배부
뉴코리아국제학교

신앙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학교

주일은 짧고, 일상의 시간은 깁니다. 믿음은 예배의 시간보다 더 긴 현실 앞에서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삶은 그 믿음을 붙들 여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계와 학업, 사회 적응의 부담 속에 놓인 자유인 청년들에게 믿음은 때로 '나중에 다시 붙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뉴코리아국제학교(New Korea Global Institute)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유인 청년들이 학업과 신앙 훈련을 통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잠시나마 삶의 우선 순위에서 뒤로 했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뉴코리아국제학교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자유인 청년에서 통일 시대의 일꾼으로

자유인 청년들이 단지 자유대한민국 사회 적응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돕는 뉴코리아국제학교(2011년 개교)는, 다가올 통일 시대에 북한 재건과 복음사역을 감당할 주역으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교육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코리아국제학교를 거쳐 간 많은 청년이 국내 주요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등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사역이 바라보는 진정한 열매는 눈에 보이기



는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좌절과 낙심,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던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금 꿈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도록 준비되는 변화, 바로 그 삶의 전환이 이 사역의 열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우는 2026년 사역 비전

2026년에도 뉴코리아국제학교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학생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개인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주 3회(화·목·금) 진행되는 저녁 수업을 통해 국어·논술·영어·수학 등 중요한 기초 학문을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며 책임지는 힘을 길러갑니다. 예배와 수련회, 성경 묵상과 문화 체험 등 신앙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일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뉴코리아국제학교는 오늘도 믿음으로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코리아국제학교 & 자유인예배 청년부 연합동계수련회를 마치며

뉴코리아국제학교와 자유인예배 청년부가 함께하는 연합동계수련회(2월 6~7일)가 영락기도원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는 주제로, 자유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힘든 학업과 고된 일상 속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 번의 수련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특별새벽기도회(2월 7일)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 특히 저녁 예배는 리딩크워십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되며, 메말라 가던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후 북한선교부 김형찬 목사님은 "매일 하는 것이

강력하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청년 시기에 방향할 때, 신앙적 모델을 분명히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다니엘의 삶을 예로 들며, 신앙적 위기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의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매일의 작은 순종과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습관을 쌓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자유인 청년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의 습관으로, 매일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만남**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전도부 전도훈련학교
전도폭발훈련 5단계 수료

윤혜선 집사
강동·송파교구

전도폭발훈련 5단계를 마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두려움이 줄고 확신이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제 안에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주간의 훈련 과정을 하나씩 배워 가며, 전도는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영혼을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5단계까지 훈련을 이어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 한 마디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듣고 사랑하는 태도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는 삶의 자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님의 역사

훈련 중 나누었던 실제 사례들과 팀원들과의 적용 시간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서툴고 어색한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제 신앙이 더욱 정돈되고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저 자신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대명령임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울고 웃으며 격려해 주신 훈련생들과 훈련자분들, 동역자분들, 그리고 늘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룹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계속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남**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전도부 전도훈련학교
전도폭발훈련 1단계 수료

김석순 성도
중구·용산교구

작년 영락교회에 등록한 후, 어느 날 2단계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계시던 권사님을 통해 복음 전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아, 그동안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큰 고민 없이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1단계 훈련 수료 간증을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전도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위해 충분히 헌신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저처럼 '알지만 훈련되지 않아서' 전도에 나서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훈련을 넘어, 삶으로 이어지는 전도

전도폭발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과 전도지를 건네는 정도에 그쳤지만, 전도폭발은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성경 말씀과 함께 체계적으로 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암기해야 할 분량이 적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도 명확하고 귀해 전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팀 전도 중 만났던 한 분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잘 서지 않는다고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문을 차분히 들으신 뒤, 결신의 순간에 모자를 벗고 기도를 따라 하시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의 변화된 표정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사역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의 두 번째 장점은 팀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두려웠을 전도를 동역자들과 함께하니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며 수고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늘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룹장님과 훈련자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신 기도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선교지를 방문하며 도전받는 것도 귀하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 한 영혼에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는 일을 바울도, 예수님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전도폭발은 수료로 끝나는 훈련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할 팀 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단계 수료 이후에도 전도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제 신앙 또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마음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폭발훈련 기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에 사는 손위 시누이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올케는 복음을 듣고 결신한 후 교회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드린 기도의 응답인지, 거제도 친구의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전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나의전도학교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전도부 010-3269-5382

기간 3월 8~29일 4주간 매주일 오전 10:50~12:30
장소 보아스빌딩 2층(중부경찰서 앞)

- 1주차** 3월 8일(개강) 우리가 사는 세상 - 세계관 바로보기
- 2주차** 3월 15일 전도의 근거 - 성경에서 시작하기
- 3주차** 3월 22일 나의 복음이야기 - 간증 전도의 실체
- 4주차** 3월 29일(수료) 쉽게 배우는 전도 - 전도의 실체

* 매주 주제별 강의 및 나눔





지친 목회자에게 위로가 된 카이로스 시간

살림! 4주 전에 돌발성 난청으로 왼쪽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고 이명 현상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참여 여부를 고민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돌아보며 기도중심으로 진행되는 5박 6일의 일정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으로 저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전-오후 영성과 성서강의는 작은 예수의 삶을 돌아보게 했고, 목사로서 말씀(룻기)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세 번의 기도회는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었습니다.

귀한 영적지도자들과 강사분들의 고백과 조언(助言)은 모든 분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고갈되고 지친 목회자의 영혼에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카이로스 시간이었습니다.

5가지 주제 (은총-정화-공생애-수난-부활)에 따라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경건하게 진행되면서 기도가 깊어져 갔고, 침묵가운데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웃고, 울고, 통곡하며 눈물을 쏟고 부활을 경험하는 영성수련이었습니다.

신중식 목사_행복한동산교회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안식일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영성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날 저녁 수련에 참석하여 5박 6일 하나님께 피해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좋아하신다.” 말씀하셔서 더 온전케 되고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쾌락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를 이뤄야할지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오후 기도회를 통해 침묵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벗들의 모임을 통해 다른 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윤숙 선교사_캄보디아

은퇴 원년에



▲ 호산나찬양대 연무대교회 순회연주(2015년)

1979년 제2회 호산나찬양대 순회연주를 떠나며 ▶



▲ 호산나찬양대 독일 브레멘 교회 연주(2008년)



은퇴의 자리에서 돌아본 평생의 은혜

어느덧 지난 연말 70세라는 나이를 맞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며 돌아보니 이제까지의 삶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영아 때부터 영락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은퇴하게 되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랜 기간 건강한 몸을 주셨고,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사회에서 큰 무리 없이 여기까지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집안의 5남매(4남 1녀) 모두가 영락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셨고, 누나는 목사님 사모로, 4형제는 장로와 안수집사, 집사로 각각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올곧은 신앙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4남매는 은퇴했고 막냇동생만 뉴욕 초대 교회의 지휘자로서 장로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언 은퇴장로
서초교구

어린 시절부터 쌓아 온 신앙과 찬양의 터전

초등학교(유·초등부) 시절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극에 출연하며 교회 생활의 터전을 잡았고, 형님들과 누나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찬양대 생활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호산나찬양대를 시작으로 반세기를 찬양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저의 교회 생활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호산나찬양대원과 지도위원으로, 그리고 음악부 임원으로 사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75년 대학 입학과 동시에 시작된 찬양대 생활은 호산나 대원 5년, 시온찬양대 22년, 그리고 다시 호산나 지도위원 24년으로, 이 기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산나 순회 연주의 시작과 확장

1977년 1년간의 호산나 총무를 마치고 1978년 당시 총무단과 더 뜻깊은 사역을 찾던 중에 교회 찬양대로서 처음으로 지방 순회 연주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의 순회 연주는 대원들에게겐 막연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하고 의논하던 중, 이성혜 대원(전 호산나 지도위원) 아버님이 음악부장으로 섬기신다는 경주제일교회에 호산나 순회 연주를 제안하니 흔쾌히 승낙하여 주셔서 첫 번째 호산나 순회 연주 대상 교회가 되었고, 가까운 부산의 부산영락교회와 이사벨여고를 직접 답사하며 순회 연주를 승낙받게 되어 여름방학 기간에 60여 명의 대원과 첫 순회 연주를 했습니다.

교회의 예산 지원 없이 진행된 호산나찬양대 자체 행사였기에, 예산 마련을 위해 대원들의 집을 방문하

며 부모님들께 수박을 판매하여 연주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호산나 대장, 부대장이신 이동범 장로님, 고상우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음악부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3박 4일간의 순회 연주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니, 지방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칭찬이 교회로 전달되어, 다음 해인 1979년부터 호산나찬양대의 연례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까지 국내 연주 32회, 해외 연주 8회(미국 2회, 유럽 1회, 일본 5회) 등 총 40회의 순회 연주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48년 전 대학생 몇몇이 기획하고 시도했던 순회 연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열매를 맺게 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은퇴 이후, 다시 개척 교회 마음으로

지난해 은퇴를 앞두고 80주년 행사 준비분과장으로 ‘영락 세계 합창제’와 ‘80주년 기념 음악회’, ‘교역자 흠뻑 데이’ 등을 진행하며,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주님께 서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81주년을 지나 다시 원년을 맞는 초대 교회의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담임목사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은퇴 1년 차인 저에게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은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새신자 이음 리더, 새신자 교회 소개 가이드 등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 힘닿는 대로 교회 생활을 이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꼈던 시간들과 그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날, 두 번의 특별한 보호와 회복

20대 초반 군대 시절, 진지공사를 하던 저는 돌 지게로 짙어진 큰 돌을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돌 지게의 줄에 걸려 3m 아래 있는 돌무덤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깊이와 높이라면 돌들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는 것이 당연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20대 중반 대학부 때, 해외선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한 와중에 팀원들과 작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 가는 것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한 후 결정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 중에 환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듯이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 서로 사과하게 되었고, 해외선교도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변창우 집사
고양·파주교구
갈보리찬양대

무너진 직장 앞에서 다시 붙잡은 하나님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제 삶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군대를 거쳐 첫 직장에 신입으로 입사할 당시, 제가 들어간 회사는 잘 알려진 조선업 분야의 대기업이었고, 직종의 성격상 주로 지방 근무였지만, 그만큼 좋은 연봉과 조건으로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는 제 삶 속에서는 일과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글로벌 경기 악화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갔고, 그 결과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동일한 상황과 입장이다 보니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회사를 나오고 얼마 동안 쉬면서 조금씩 조금씩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2016년 8월 인도 해외선교와 9월 추석 기간 의료선교부의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해외 의료선교가 계획되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선교 여행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달간 단기 선교 준비와 인도와 아프리카라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들이며,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도 함께하실 것이라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듯 보이다가도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게 되

었고, 울산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더 깊이 빚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1년,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오랫동안 기도해 온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은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하니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또 안일하게 여겼던 제 행동양식들이 사실은 고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제 안의 부족함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점점 짝이고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 제게 맞는 최고의 배우자를 준비해주신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한마디, “모든 것이 은혜”

매주 갈보리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종종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내 삶의 경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기억이 담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로 간증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만남**

의료 선교사의 꿈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온 한 고등부 목회자의 이야기



김현준 목사
고등부



의사의 길 앞에서 다시 들은 복음의 부르심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사춘기 시절 찾아온 회의감은 저를 깊은 내적 방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졌습니다. 이후 의료 선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의 고교 생활 끝에 여러 의대와 약대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폴 워셔 선교사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선교가 영원의 관점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의학의 길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소명자가 되기 위해 무디신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국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서다

신학 공부는 행복했지만, 미국 문화에 익숙해진 제게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정체성 혼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국적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우울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 시간조차도 차선책(Option B)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Option A)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이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관계로 세워지는 목회

저의 목회 철학은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임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파주 문산의 작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당시, 학업에 억눌린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먹이기 위해 주중에는 공장에서 노동하며 심방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도는 가르침이 아닌 삶을 보여줌에 있다.’라고 믿기에 아이들과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하며

(사진) 쌓은 신뢰 관계 위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서울드림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향한 섬세한 사랑과 팀사역의 기쁨을 깊이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우려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밑 빠진 독은 채울 수 없어도, 흘러나간 물이 주변 의 마른 땅을 적시고 그곳에 생명이 피어난다.’라고 확신합니다.



‘밑 빠진 독’이 아닌, 세상을 적시는 제자로

이제 영락교회 고등부 사역자로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교회 출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자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 가길 꿈꿉니다. 영락의 다음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복음으로 양육하는 성실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만남**



자본주의와 성경적 경제생활



신이철 은퇴안수집사
성남·분당교구
아신대 선교대학원 교수
한국크라운재정사역 대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란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와 이익 추구를 중시하는 철학적 기반 위에, 역사적 발전 과정(상업-산업-금융-글로벌 자본주의)을 거쳐 형성된 사회 전반의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크리스천 개개인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매일매일의 경제생활에 적용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와 주체적 삶을 추구하는 MZ세대는 전통적인 부의 개념인 얼마만큼을 ‘소유’하느냐보다는, 오롯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의 만족과 안정을 제공하는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리는 경제활동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진정한 ‘부(富)’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크리스천이 궁금해하는, 즉 “성경이 말하는 부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며,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부족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 온 평신도로서 이해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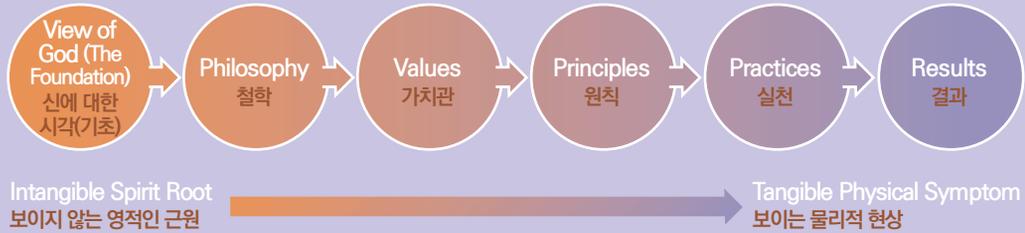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 경제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좋은 결과는, 단순히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스마트한 행동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근원이 되는 ‘신(神)’, 즉 우리 크리스천의 경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신관(神觀)’이 개개인의 철학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으로부터 가치관과 행동 원칙이 제시되어 경제활동의 모든 국면에 바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다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보다 목적 있는 삶이 더 바람직하다면, 우리는 먼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은 후

Results are Rooted in Your View of God

결과는 신에 대한 시각에서 파생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28)

에, 그 목적을 이루는 삶, 특히 경제생활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삶의 주체가 되는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과 영적 상황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으며,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늘나라로부터 사단이 왕노릇을 하는 타락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문화를 창조하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타락한 이 현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 즉 사랑, 공의, 자유, 평화, 평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을 보냄을 받은 모든 곳에서 이루라는 ‘가치 창출 명령’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을 통해 창조하고 맞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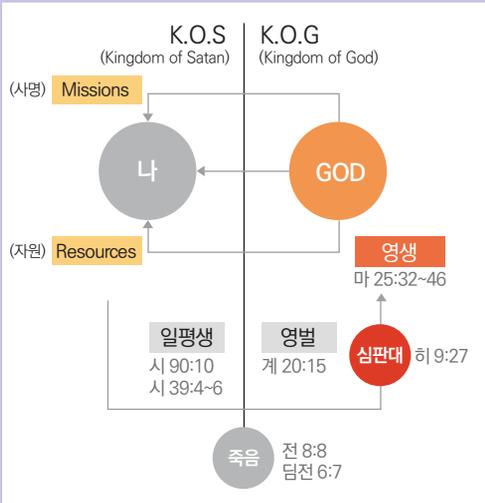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말씀을 전하라는 가치 전파 명령, 즉 ‘선교·전도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기에 유니버설한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상의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권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에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에 그 공적과 열매를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적 심판

고린도전서 3장 12~15절 말씀에 의하면 심판 날에 우리 개개인의 공적이 나타나고, 그 공적이 불로 시험받아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생의 삶을 통해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으려 할 것입니다. 관건은 어떤 공적이 불타는 공적이며, 어떤 공적이 불타지 않는 공적인가에 대

나는 어디로 가는가?



© 한국크라이스트재정서역

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해하는바, 모든 물질(物質)은 불에 타지만 모든 가치(價値), 즉 사랑, 자유, 평화, 공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타지 않기에 이러한 가치들을 소위 '불멸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불타는 물질 즉 돈을 추구는 것이 아니라, 불타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여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정하게 주신 재능(talent), 시간(time), 물질(treasure)을 활용하여, 불타지 않는 공적 즉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상 지식과 경험 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 성경적 경제원리와 지혜들을 이해함으로 올바른 성경적 경제관 및 가치관을 확립하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경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약속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말해주는 성경적 경제원리와 지혜



를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신다.’는 의미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놀라운 순종 뒤에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를 보시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이 선포된 것을 기념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제활동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약속하셨습니다.(시편 34:9~10)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는,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녀들의 일상의 경제생활에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요, 전체 인구 수로 보면 2백만에서 3백만에 가까운 규모의 백성이 자유인으로 40년간 광야에서 경험한 경제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경제생활이며,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유지된 경제입니다.

이상의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경제원리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파송 받은 곳에서 주어진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며, 두 가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경제교육 배우기

우리 영락교회는 2014년 이래 지금까지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성경적 경제생활’ 교육을 제자양육훈련부 산하의 교육과정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23기로 진행되는 ‘성경적 경제생활’ 교육을 통해 2026년 한 해 성도님들의 경제생활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만남**

2026년 어머니학교

말씀나눔 | 중보기도 | 멘토링

마더와이즈



- 일 정** 3/21~4/25 매주 토요일(6주간) 10:30~12:30
- 인원 방법** 여성 20명 내외/(1주와 6주는 봉사관 404호 모임/2주~5주 실시간 줌)
- 회 비** 5만 원(교재 및 기타) 우리은행 1005-201-610374 상담부
- 신청 문의** QR코드로 신청 / 상담부(봉사관 3층) 2280-0171 / 팀장 010-7158-3088



기억을 디자인하다

영락교회 굿즈 디자인 작업 기록



조진숙 성도
동대문·중랑교구
영락미술선교회 회장



위 사진은 본당 정면 출입문 위쪽에 부착된 금속판으로, 북한 공산 치하에서 피난 내려와 첫 예배를 드렸던 교우 27명을 기념하기 위해 영락교회 창립 35주년에 제작·전시한 기념물입니다.

저는 12년 이상 영락교회 본당을 드나들면서도 한경직기념사업회(한기사)에서 디자인 의뢰를 받고서야 이 금속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금속판 내용을 소재로 기념품을 제작한다는 계획을 듣고, 깊은 역사와 의미를 디자인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기도하며 하나씩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스카프 디자인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으로, 스물 일곱 분을 상징하는 식물 덩굴 각 문양의 패턴화 작업에 관한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시도한 끝에, 덩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린 디자인으로 방향을 정했고, 샘플 제작과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네 가지 색상으로 스카프를 완성했습니다. 식물 문양은 자연스럽고 단순한 손 그림 느낌으로, 시중 스카프에서는 볼 수 없는 단순하며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넥타이 디자인

식물 형태에서 모티브를 따내며, 힘든 상황에서도 첫 예배를 드렸을 교우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이 식물은 어떤 분을 표현하고자 했을까 생각하며, 정성껏 형태를 다듬어 중복되는 패턴을 제외한 결과, 총 17종의 문양을 군청과 자주 두 가지 색상으로 완성했습니다. 군청색은 희망과 기대를,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때 입으셨던 자주색 옷은 회개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굿즈를 위한 디자인, 본당 건물 일러스트

한정직기념사업회에서 처음 굿즈 제작을 논의했을 때 제안했던 여러 시안 중 하나인 본당 건물은 일러스트 작업이지만, 손그림의 느낌을 살려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작업하며 교회 건물의 외관 곳곳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본당 건물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경이 참 아름답고, 많은 이에게 쉼을 주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일러스트는 에코백과 기념품 포장 박스의 피지 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표어 디자인



영락교회 표어인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를 주제로 디자인하며, 추상적 의미의 표어를 어떻게 시각화할지 기도하던 중, 간접적인 형태로 십자가를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당 일러스트와의 통일감을 위해 와콤펜으로 손그림 스타일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즐거움을 담고 있는 다양한 크기와 색의 동그라미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기쁘게 봉사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각 동그라미의 중심을 차지하는 십자가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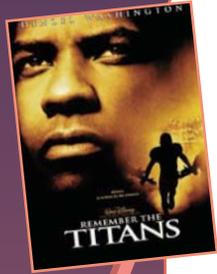
태의 공간에 배치한 붉은색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로서 교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완전한 원을 이루는 성도와 십자가의 결합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춤을 추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큰 원 안의 십자가는 분리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문안 역시 필요에 따라 유무를 선택할 수 있게 십자가의 형태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뜻깊은 작업을 맡을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사하며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맡은 교회 일을 통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각 부서가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를 이루는 데 일조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작업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남**

영락시어터 3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리멤버 타이탄 (Remember The Titans, 2001) 12 1시간 55분

1일

감독: 보아즈 야킨 **출연:** 덴젤 워싱턴, 윌 패튼, 도널드 페이스, 우드 해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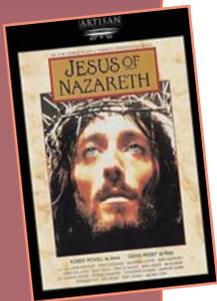
1971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에게 풋볼은 성탄절보다 화려한 축제이며, 플레이오프 경기는 국경일보다 더 웅장한 행사이다. 지역 교육청이 백인과 흑인학교를 통합시키면서 T.C. 윌리엄스 고등학교의 신설 풋볼 팀 "타이탄스"에 흑인 감독 허만 분(덴젤 워싱턴)이 부임한다. 이에 지역 백인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풋볼 감독을 맡았던 빌 요스트가 허만 분을 도와줄 조감독으로 밀려나자 백인 사회에서는 강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다.

어거스트 러쉬 (August Rush, 2007) ALL 1시간 53분

8일

감독: 커스틴 웨리단 **출연:** 프레디 하이모어,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

매력적인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받는 첼리스트인 라일라는 우연히 파티에서 만나 첫눈에 서로에게 빠진다. 그러나 라일라의 아버지에 의해 둘은 헤어지게 되고, 얼마 후 라일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아기를 출산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 (Jesus of Nazareth, 1977) 15

15일/22일/29일

1부: 1시간 33분 / 2부: 1시간 32분 / 3부: 1시간 32분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 **출연:** 로버트 파웰, 앤 밴크로프트, 올리비아 핫세, 안소니 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다.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한다. 그곳에서 성장하신 예수는 때가 이르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사역을 시작하신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신다.



01

2026년 제직부흥회 개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권능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란다”

제직부흥회가 지난 1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제직부흥회는 18개 교구의 제직들이 교구

별 지정 좌석에 함께 모인 가운데, 탁현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이번 부흥회는 새해를 맞아 제직으로서 사

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는 ‘성령 권능 증인’(사도행전 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 목사는 “영락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성령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 목적, 방향을 제시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초대교회 제자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제직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맡겨진 봉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김경욱 기자

당회원 영성수련회

2026 당회원 영성수련회가 1월 26일 (월)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당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고 한경직 목사님의 우거처를 바라보며 초심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9시부터 시작된 수련회 일정은 찬양, 예배, 기도회, 점심식사, 영성산책, 특강, 소그룹 나눔 등으로 이어졌으며, 제868회 당회와 저녁식사로

02



오후 6시경 마무리되었다.

예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김운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며, 특강은 아신대학교 총장 정홍열 목사가 맡았는데, 주제는 ‘모세의 리더십’이었다. 정 총장은 모세 리더십의 특징으로 듣는 리더십, 분권적

리더십, 중보적 리더십,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리더십 등을 들어 설명했다. 8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 소그룹 나눔에서는 ‘나의 회심 경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 등을 주제로, 평소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03

제2남선교회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제2남선교회는 2026년 2월 7일, 50주년기념관 604호에서 신년기도회를 갖고 믿음의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직전 회장인 이민하 장로의 기도로 시작한 예배는 담임목사님의 말씀 '넘겨

줄 이야기'(창세기 48:15~16)를 통해 후대에 전할 신앙의 유산을 깊이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중도실명자 교회인 우리사랑교회 찬양대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역경을 이겨낸 김방울 사모의 간증과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적셨다. 우리사랑교회 예배장소를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중보와 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고, 박용준 지도목사의 합심기도 가운데 회원과 내빈을 포함한 125명의 참가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취재 정재훈 안수집사 _ 제2남선교회 회장
사진 박상수 안수집사

안수집사회는 2026년 1월 17일 50주년기념관 604호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안수집사회(롬 1:16~17)'를 모토로 신년수련회를 가졌다.

안수집사회원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임목사님은 디모데전서 1:18~20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했던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안수집사회가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서 전병주 지도목사의 인도로 안수집사회는 영락교회의 중추로서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



04

안수집사회 신년수련회를 마치고

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뜨거운 통성기도를 드렸다.

신임 회장 홍성표 집사는 교회창립 80주년 사역을 앞장서 헌신하여 안수집사회를 이끌어준 목흥균 전임회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새해에는 모두

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힘써 줄 것을 권면했다.

취재 홍성표 안수집사 _ 안수집사회 회장
사진 박상수 안수집사

교육부 신년교사기도회

교육부(부장 조용철 장로) 신년교사기도회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디모데후서 1:6)'라는 주제로 1월 31일(토), 드림홀과 제2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의 교역자와 학생 임원 및 교사 353명은 2026년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1부 경건회는 정근우 전도사의 인도로 중등부 찬양팀이 포문을 열었고,

조용철 장로의 기도, 신주현 목사의 성경봉독, 김운성 담임목사의 설교, 방덕종 목사의 기도회 인도 및 2026년 교육방향 나눔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아이의 소리를 들음시다(창세기 21:14~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 목사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이의 기도'로 받으셨다"는 내용을 인용하여 "교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이들을 살리신다",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

05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교회학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각 부서 부장의 올해 계획과 다짐에 이어 광고와 사상이 있었다. 이후 식사와 부서별 교제를 통해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

취재 한지희 집사 _ 교육부 서기



06

교회 산하 보성, 영락, 대광학원 8개 학교 졸업식 거행

기독교학교로서의 건학 이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 분위기에서도 인재 양성에 힘쓰는 교회 산하 학교들이 졸업식을 마쳤다. 지난 1월 7일에 치러진 보성학원 졸업식은 보성여고가 오전 10시에, 보성여중

은 오후 1시에 거행되었다. 제102회 졸업식을 맞은 보성여중은 한경직목사기념관 강당에서 교목의 기도로 행

사를 시작했다. 졸업장 수여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학교장의 축사에 이어,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준비한 특별 무대가 펼쳐졌다. 축하 공연으로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 전원이 무대에 올라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모습은 가슴 먹먹한 큰 울림을 선사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이날 중학교 71명, 고등학교 127명이 졸업했다. 취재 김경욱 기자

영락교회 산하 영락, 대광학원 졸업식 일정

영락중학교 1월 8일(목) 영락고등학교 2월 4일(수)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2월 4일(수)
대광초등학교 2월 10일(화) 대광중학교 2월 6일(금) 대광고등학교 2월 9일(월)



07

영락교회 신임 교역자, 복지 현장을 가다

영락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교역자들이 목회의 첫걸음을 '섬김의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임 교역자 8명

은 2026년 2월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 여러 기관을 탐방하며 뜻깊은 시간

을 가졌습니다. 이번 탐방은 소외된 이웃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교회의 책임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은 복지 현장 곳곳을 살피며 이론으로만 접하던 나눔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기관 탐방을 통해 얻은 감동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하는 교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박노석 은퇴장로 별세

박노석 은퇴장로가 지난 1월 21일 (목) 향년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45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본 교회에서 1991년부터 선교부 실행위원, 사회봉사부 서기로 봉사를 하다가 1994년 12월 집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부 서기, 사회봉사부 차장, 대학부 교사, 새가족부 차장, 베들레헴찬양대 대장을 거

쳐 2009년 12월, 제38회 장로로 장립을 받았다. 이후 2015년까지 당회원으로 사회봉사부 부장을 지내며 사회봉사에 열정을 다하셨다. 지난해 11월 힘든 항암치료 중에도 가이드 포스트에 생전에 한경직 목사의 이야기를 남겨 큰 감동을 전했다. 장례식은 1월 24일 오전 8시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운성 위임



목사의 집례로 거행되었고 음악부의 조가, 조사, 헌화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하관예식은 영락동산에서 이지철 목사의 집례로 드려졌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최정자 은퇴권사와 1남을 두었다.

홍두환 은퇴장로 별세

홍두환 은퇴장로가 지난 1월 27일 (화) 향년 93세로 별세하였다. 1932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고인은 1974년부터 평신도부(청년영성부) 부감, 중등부 부감을 봉사하며 1978년 집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대학2부 부장, 영락여자신학원 운영위원, 감사위원회 차장, 영락유치원 감사, 교육2부 차장, 평신도1,2부 부

장, 영락농아인교회 운영위원을 지내며 1994년 12월 제26회 장로 장립을 받았다. 2002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 영락기도원 운영위원, 기도원장을 거치며 그 공로로 표창패를 수상하고, 기도원 개축 공헌으로 감사패도 받았다. 2020년에는 은퇴장로회 회장을 역임했다.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로 29일(목) 본당에서 이철신 원로 목사의 집례로 말씀, 조가, 조사, 헌화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후 전병주 목사의 집례로 자연장으로 치러졌으며, 유족으로는 정경옥 은퇴권사와 2남을 두었다.

김병훈 원로장로 별세

김병훈 원로장로가 1월 26일 향년 107세의 수를 누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LA)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19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6년 제1회 안수집사로, 1967년 제6회 장로 장립을 하여 친교부장, 상례부장을 지내며 1988년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후에 김 원

로장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1947년 군정청 적산관리과에 근무 시, 영락교회 본당 부지와 보린원, 경로원, 모자원 부지를 확보하여 당시 한경직 목사 명의로 불하하여 교회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도심에 교회와 부속기관을 두게 되는 데 힘을 썼다. 또한 선천에 이어 차남 김두형 은퇴장로까지 3대째 장로



를 세위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 장례는 2월 5일(목)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LA)에서 드려졌다. 유족으로는 3남 3여와 많은 후손을 두었다.



겻세마네의 그리스도

Christ in Gethsemane
1890

하인리히 호프만
Heinrich Hofmann
1824~1911

예수님의 거룩한 고뇌

- 겻세마네 동산에서

이 그림은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 장면을 표현한 독일의 화가 하인리히 호프만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겻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 엎드려 각지 낀 손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고뇌하는 완전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왼편 위에서 내려오는 빛은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머리 주위에 은은하게 빛나는 후광(Halo)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아주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뒤편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당부를 들었음에도 잠들어 있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홀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온화하면서도 위엄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고독한 길을 선택하신 메시아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6년 3월호 통권 623호

발행 2026. 3.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이신일 김정훈 김기선 박선이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사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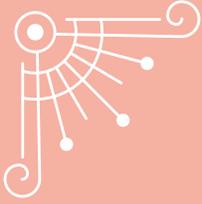
월간 「만남」 e-Book

표지설명



겨울을 밀어내듯 목련 가지에 앉은 직박구리. 아직은 찬 기운이 남아 있지만, 마음속엔 봄을 기다리는 희망과 소망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긴 겨울을 견딘 마른 가지 끝 생명의 숨결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께도 다시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봄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이미혜 권사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2026년 1월

※ 교회 홈페이지 기재 기준

새아기

- 2 박연우(박건, 김보미 가정)
- 3 김태하(김두범, 신가영 가정)
- 4 최이람(최재서, 박지현 가정)
- 5 김하은(김승구, 양은정 가정)
- 6 문가은(문성룡, 고윤정 가정)



군입대 1 양선모



겟세마네의 그리스도 Christ in Gethsemane

하인리히 호프만(Heinrich Hofmann)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